

마감과 아내와의 전쟁

이승언

월간 맥마당 기자
yish@infor.co.kr

언제 말고 있고 관심있는 분야 모두 DTP, 취미는 언제나 '등산' 이라고 한다. 산에 올라가 본게 언제드라. 요즘에 새롭게 바둑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기풍은 臨戰無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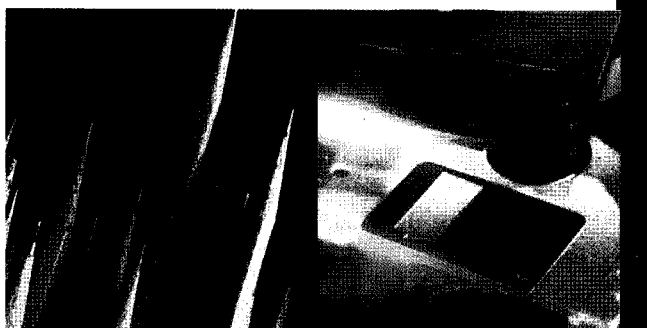


남자는 일생에 여자로부터 기쁨을 얻을 때가 두 번 있다고 한다. 한번은 그녀와 결혼하는 날, 또 한번은 그녀의 장례식에 서는 날. 지금 상황으로 보아 장례식장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설사 장례식장에 내가 서 있다고 해도 기뻐할 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결혼할 때 기뻐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누군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선뜻 권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지신 세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해본 놈이 더하다는 편견이 날아올 지도 모르지만, 벌써 결혼한지 5년이 되는 중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쁨뒤에 숨겨진 비수를 아는 까닭이다.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이 여러 번도 아닌 딱 두 번이라고 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기자생활과 가정생활

'기자 생활과 가정생활의 올바른 조화' 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고 아내에게 알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면박부터 받았다. 언제나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인데, 마감때는 시간이 없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인가에 바쁜 남편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내인지라, '둘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 글을 써야지 가정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당신에게는 과분한 글이라' 며 불가론을 내세웠다. 한참의 논쟁 후에 아내는 옆방으로 건너가더니 잠시만에 대학노트의 4장에 걸친 장문의 글을 나에게 내밀었다(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글쓰는 것은 아내가 나보다 백번 낫다). 기자라는, 마감이라는 통과 의례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부인과 가족이므로 이 글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부인에게 넘겨져야 한다며 여기에 자신이 겪는, 아니 대부분의 기자부인이 겪으리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밖에서는 밤을 새서는 안된다는 장모님의 강력한 성화 때문에 마감때지만 집에 조금 일찍 들어와 컴퓨터에 앉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던 참이고, 그리고 다시금 아내와 논쟁하기가 부담스러워 조금 있다 보겠다고 옆에 놓으라고 했다. 나중에 읽겠다고. 그러나 결국 그 글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서인지 그 글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온 이야기이니 말이다.

결혼, 그것은 새로운 시작

유난히 고집이 센 우리 두 사람은 만나면서부터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영역 다툼을 했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것은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뿐이다.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서로의 빈 자리를 너무나 확연히 느꼈고 또 싸울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12년을 만나오면서 가장 긴 휴식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 이후 우리는 의례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몰라도 나만큼은 기나긴 싸움이 이제는 마감했으리라 생각했다. 결혼은 종착역이 아니던가. 종착역에서는 여행중에 열차안에서 느껴왔던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그 여행으로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만큼 잘 보란듯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도 나도 그것이 또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1백일까지는 언론과 평화롭게 지내는 '1백일간의 밀월' 기간이 있지 않은가. 우리도 1백일까지는 못해도 그에 못지 않은 시간을 신혼의 단꿈에 젖어 보낼 수 있었다. 나름대로의 원칙, 나는 아내 이외의 여자는 여자

보지 않는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게 되고 대하는 태도 역시 한결 자연스러워지게 마련이다.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유부남이라면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바람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부들이여, 자신의 남편이 최대의 바람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안심하시라. 물론 안심만 하고 긴장까지 늦추는 일은 없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0점이었던 것 같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의무(사실 이것이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맥마당에 들어와 '마감'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순간부터 더욱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워낙 슬로우라이터(Slow Writer)이고 그나마 글쓰는 재주도 워낙 모자라 남보다 먼저 시작하면서도 언제나 마감 끝 언저리에서 손가락을 다투는 못난 남편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독수공방해야 하는 밤도 따라서 늘어갔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수면부족으로 한없이 피곤하지만 한 이 마감때에도 신경전은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전이되고 그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내나 나나 서로가 집에 있을 때는 잘만 하면 쉬는 공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집은 쉬는 곳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더 나아가 봉사해야 하는 공간인가?라는,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마감때만이라도 휴전하자는 청을 하면, '쉬운 것 같지. 한번 해봐. 마감보다 더 힘든 게 집안일이야. 당신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루도 안돼서 도망칠걸'라는 말

로 금방 반격을 해온다.

사실 마감때가 되면 나만큼 아내도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남편이 이 얘기를 들으면 '부부 맞어?'라고 반문할 지 모르겠다. 때로는 이러한 신경전에 무릎을 꿇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혼이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는 '결혼 무용론'까지 비약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내나 가족이 아니다. 그곳에 숨어 우리에게 비수를 내미는 '그 무엇'이다.

책임이라는 비수

물살이 센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어깨에 무거운 돌멩이라도 없어야 한다. 이미 답설무흔(踏雪無痕)이라든가 초상비(草上飛)와 같은 고도의 경공술을 펼칠 수 있는 내공을 지니고 있거나 이 격류를 건네줄 튼튼한 배와 사공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요즘과 같이 험한 세파를 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과 번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칙은 가정이라고 비켜가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가족 그 자체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다. 없으면 죽고 못살아 결혼한 사람까지 성격차이라느니, 섹스 트러블이라느니 하며 해로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듯이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정을 얻은 기쁨뒤에는 책임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어 그 예리한 검면에 상처를 입을 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비수는 아내라는, 자식이라는 갑옷을 입고 사랑이라는 해독제만 가지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KCRC**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정을 얻은 기쁨 뒤에는
책임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어
그 예리한 검면에 상처를 입을 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